



**익산시 이선임 계장,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익산시는 건강생활과 이선임 재활보건계장이 2024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합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통합성과대회는 27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아동복지회 등의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 진행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전관리사업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했다. 익산시가 개인 유공자 부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선임 계장은 익산시 운영 사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추진해 장애인 건강보전관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계장은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장애인 건강보전관리사업을 추진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이웃사랑의사회, 다자녀가정 주거환경 개선 후원**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28일 (사)이웃사랑의사회(김제시소 회장 김기범)가 지역 내 다자녀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한 다동이 가정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김제시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개·소·금(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 아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제시소 김기범 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희옥 부회장은 "따뜻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번 후원금은 다동이 가정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웃사랑의사회는 의사 회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수술지원, 청소년 생활장려금 지원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읍 발전회 · 이장협의회 등, 성금 1백만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 발전회(회장 정을운)와 무주읍 이장협의회(회장 신운주), 무주읍 부녀회(회장 하연순)가 지난 28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무주군에 전달된 성금은 제28회 무주넋넋축제 기간(8. 31. ~ 9. 8.)동안 운영했던 '무주읍 먹거리장터(천원국수)' 수익금 중 일부로, 무주읍 발전회 정을운 회장은 "발달대위와 국수 열기 속에서 최선을 다한 보람을 우리 이웃들에게 돌릴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무주읍 이장협의회 신운주 회장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진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전했으며 무주읍 부녀회 하연순 회장은 "추위를 이겨내야 꽃이 피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행복 꽃이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28회 무주넋넋축제 무주읍 먹거리장터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무주읍 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 부녀회 회원 27명과 무주읍 직원 20여 명이 매일 국수와 다과 등을 판매하는 등 함께 운영하며 일익을 담당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기능경기대회서 빛나는 성과'**

전북선수단, 32개 메달 획득... 도지사 직접 메달 수여 · 기능인들의 성과 격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선수단 격려식을 개최했다.

이날 격려식에서는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메달을 수여하며 선수들과 지도교사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 기능인력의 뛰어난 성과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선수단은 총 102명이 34개 직종에 참가해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 우수상 6개, 장려상 12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북의 기능인재들은 이로써 전국적인 무대에서 그들의 기량을 다시 한 번 증명하며, 지역의 기능 경쟁력을 높였다.

이어진 2부 해단식은 라투체에서 열렸으며, 선수단과 지도교사, 심사위원, 대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도교사와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전북 기능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다.

해단식에서는 전북기능경기위원회 강원식 사무국장 의 대회 경과보고와 함께 우수 지도교사 발표 및 선수



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기능경기대회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다짐을 다졌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 입상자와 지도교사들에게 상금과 특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능 우수 인재들이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희수 도의회 부의장, 꿈드래장애인협회 감사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전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고창군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한마음 체육대회 및 문화공연'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사)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는 "김희수 부의장은 평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공헌하였기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희수 부의장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향상과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도동동 지사협, 착한 가게 현판식**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 김희만)는 지난 28일, 관내 호남정보통신(대표 김상태)에 착한가게 2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착한가게는 매출 매출의 일정액 (월 3만원 이상)을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착한가게, 착한가정 등 기부에 관심이 있는 분은 도동동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태 대표는 "작은 마음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나눔에 동참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이백면, 구급상비약 1일 1가구 방문 전달**

남원시 이백면(면장 안동준)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구급상비약 구비가 미비한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이백 백제약국과 협약하고 지난 4월부터 구급상비약을 1일1가구 방문 전달해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이백면과 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급상비약(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일회용 밴드, 패스 등)을 매일 2가구씩 현재까지 총 12가구에 전달하였으며, 복약지도 및 기타 건강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쌀 지원**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는 28일 장수군가족센터(센터장 오인철)를 방문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 관내 농협 조합장들이 정성을 모아 백미 10kg 40포(120만원 상당) 기부 하였다.

기부된 쌀은 장수군가족센터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다문화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준오 지부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힘이 되고자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대 김정현 · 이지원 학생, 프레쉬박스 요리 최우수상 수상**

전주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김정현·이지원 학생이 지난 26~27일 이틀간 익산 하림 퍼스트킴에서 열린 NS FOOD FESTA 2024 in IKSAN(이하 NS 푸드페스타) 프레쉬박스 요리 경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NS 푸드페스타는 2008년부터 그동안 다양한 요리 레시피 발굴과 확산을 통해 식품산업과 국내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국 최대 규모의 식품문화축제로, 이번 행사는 요리 경연 본선과 식품 스타트업 경진대회, 프레쉬 미식회, 쿠킹클래스, 미식투어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프레쉬박스 요리 경연은 전국의 조리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최고의 레시피를 선보이는 경연으로, 이 경연 부문에 참가한 김정현·이지원 학생은 '시래찌와 고구마 소스를 곁들인 에그마요 치킨 롤'을 선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정현·이지원 학생은 "그동안 학과에서 학습한 전공 이론 및 실습을 통해 NS 푸드 페스타 프레쉬박스 요리경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무척 기쁘다"며 "전주대학교 학



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산업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국 최대 규모 요리 경연 대회에서 전주대 외식산업조리학과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 /장문성 기자

**진안군애향본부 등, '온기 전하는 희망 연탄 나눔' 행사**

한국자유총연맹 진안군지회(회장 배병선)와 진안군애향본부(사무국장 김민아)는 지난 27일 진안군 용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는 올해로 4년째 이어온 것으로, 이날 봉사에는 20여명의 회원 봉사자들이 참여해 연탄 800장(80만원 상당)을 무더위 속에 땀을 뻘뻘 흘리며 전달, 기부했다.

이날 연탄을 지원받은 문 모 어르신은 "앞으로의 겨울철 추위가 걱정 됐는데 이번 연탄 지원으로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걱정을 덜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활동을 전개한 김민아 진안군 애향본부 사무국장은 "날씨가 더워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회원들과 펼쳐 보람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 배병선 회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온정을



이웃과 더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연탄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가족센터 쌀 지원 등 캠페인**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는 지난 28일 무주군 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를 방문해 무주 쌀 40kg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 관내 가정의 복지향상과 지속적인 쌀값 하락 및 소비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진행되었으며, 일백만원 상당의 무주반딧불 쌀(10kg 40포) 전달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범석 지부장은 "이번 쌀 나눔을 통해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식은 지난 12일 전북농협과 가족지원센터 전북거점센터 간 아침밥 먹기 운동 및 다문화가정 쌀 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다문화가정 쌀 지원**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28일 순창군가족센터(센터장 문정현)를 찾아 다문화가정 쌀 지원 및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쌀 소비 감소로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균형잡힌 식사 문화 정착을 위해 전북농협 조합장협의회 모금액(순창쌀 1kg 40포)을 전달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응원했다.

이병희 지부장은 "다문화가정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순창군 5대 군정 목표 중 4번째인 따뜻한 복지 일환으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는 이번 기탁 이외에도 농촌 일손돕기, 축산물구매기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